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286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0. 9. 25(금) 14:25 ~ 18:48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박경주 위 원
 유은선 위 원
 이시백 위 원
 이원재 위 원
 이진희 위 원
 이희경 위 원
 전고필 위 원
 정유란 위 원
 조기숙 위 원
 홍태림 위 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2020년 9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한해 농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020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사업 추진계획과 2020년-2021년 국제예술공동기금 「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 리서치 공모 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보고안건으로 지난주 국제교류부장이 위원님들께 유선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린 미술계 성희롱 논란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경과보고를 비롯하여 총 12개의 많은 보고안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되어 오신 상임감사님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남요원 신임 감사님께서 임관되어 오셨고 2일부터 바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럴 때 어떻게 취임식을 하겠느냐?” 라고 하셔서 취임식이 없이 3일부터 직무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첫 위원회이니만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의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요원 감사

- 반갑습니다. 9월 1일로 부임을 명받고 인사를 드리게 된 남요원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신임 감사님으로 든든한 분이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사무처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오늘은 전원이 출석을 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위원 모두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회의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85차 회의에서는 2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서 1건은 원안의결이 되었고, 아르크 예술기록원의 2020년 2차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대상 결정의 건은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전차(前次)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2개의 의결안건 중에서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이 건은 조미숙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공정심의부장

- 2021년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에 대한 사업이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으나 지원의 범위와 수혜에 대한 확대,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확대를 시행하고자 하였고요. 보조사업 수행방식과 보조금 집행의 유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정시공모와 별도공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정책 소위와 20일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통해서 2021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속하지 않는 5인의 위원님들께는 메일로 따로 보고를 드렸고요. 가까이 계신 전고필 위원님께는 따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혁신 소위에서 나온 얘기는 뒷부분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 현장소통 소위에서 나온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르크창작지원 사업에서 미발표 작품으로 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20편이라고 했던 것은 저의 오기였고 7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창작지원의 장편소설의 경우 2년 내에 출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엄정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유예기간을 뒤서 출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 841호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 예산은 2,946억 3,400만 원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294억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쪽 공모 대상 사업비 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689억 1,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같음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주요 추진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현장 생태계에 가장 가깝게 발 맞추는 지원을 하고자 지원대상 및 수혜를 확대하였습니다.

문화 창작기금, 시각 사전연구조사 및 공간지원, 연수단원 운영 대상 등을 대상으로 지원신청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전시공간 지원은 기존 자립형 및 성장형 외 신생형 트랙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등 일자리사업을 기존 시각, 공연예술 분야에서 문학을 추가하여 채용 규모를 283명에서 545명, 예산은 54억에서 104억으로 48.1% 정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비영향 사업 확대입니다.

개인활동 및 발표 사전 단계 지원을 확대하였고 문학, 시각, 공연예술 분야의 개인지원을 확대하여 비평 및 연구 등 개인창작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작과정의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방식의 확장입니다.

창작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대면 방식의 창작활동 외 비대면 방식의 창작활동 방식까지 사업을 다변화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보조금 내 인건비 등 편성을 확대하였고 영유아 자녀 돌봄비용 등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공모 시기를 코로나 영향이 큰 사업들의 별도공모로 추진하였고요.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는 별도로 공모 시기를 분산하였습니다.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확대입니다.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 사업에 예술 향유대상(아동·청소년) 확대와 창작 장르 다양화(다원·독립예술 등)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청자의 편리하고 다양한 사업선택을 뒷받침하는 심의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하고자 1차 심의에서 받았던 것을 제출 시기를 달리하여 꼭 받아야 될 사항만 받고 선정된 이후에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지원신청 당시 검증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 발표에서는 저희가 최종 버전을 발표하였으나 1차 심의결과를 발표하여 신청단체 및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예방에 관한 서약서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자 서약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신청 단체에게는 조금 더 강화된 성평등 행동강령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및 개인은 지원선정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내용은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아직 통보를 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별도로 통보 하겠습니다.

공정보상 정착노력으로 원고료 평균단가를 고려해서 정례화 하고 서면계약서 미체결·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7기 소위원회를 통한 긴급한 현장이슈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시에 심의위원과 신청자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심의분위기 조성 및 공정 심의평가관을 통한 심의태도 평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모 대상 사업 세부 현황은 13쪽과 1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총 46건으로 정시공모는 22건이고 별도는 21건이며 다년간 지원사업은 3건으로 총 46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시공모 추진방식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10월 8일부터 10월 30일 18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지원심의를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면 결과발표는 12월 28일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10월 8일 목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원신청 공통 조건입니다.

지원신청 자격은 기존과 같고요.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과 방식으로 하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첨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인데요. 여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해진 기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다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7쪽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18쪽입니다.

한 신청단체·개인이 문예진흥기금 동일한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으며, 중복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모 차수가 2회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자면 국제교류지원 1차 공모에 선정된 단체는 2차 공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예외사항은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9쪽 (아)의 공통사항입니다.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는 필수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를 하였고, 계약기간 개시 전에 반드시 서면계약 체결한 내용을 필수제출 서류로 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보조사업 운영 안내입니다.

기존과 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재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위원회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1쪽의 지원신청 및 결과발표,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서 (가)번에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을 적었습니다.

지원신청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단체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심의 결과 발표에서 2차 이상 지원심의를 이루어지는 사업의 중간 심의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별도 의결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표내용은 지원심의 접수현황 및 선정결과, 지원선정 내역 및 심의총평, 지원심의 경과, 심의위원회 구성, 향후 진행사항 및 사업담당자 안내, 지원심의 옴부즈만(이의신청제도)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한 내용이나 개선할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축약을 할게요.

지금 공정심의부장이 보고한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경과보고에 정책 소위원회와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5인의 위원들께 별도의 메일을 드려서 검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사무처 내에서는 2021년도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과 본부장 전원 그리고 사무처장과 위원장, 감사님이 참여하는 전체 지원사업 토론회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된 안에 대해서 본부장은 조금 더 설명할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일단 공모사업 추진일정에서 공고 및 신청접수가 10월 7일로 되어 있는데 10월 7일은 문화부 국정감사 시작일이라서 그 날을 피하기 위해서 10월 8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7일이 아니라 8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2021년도 지원사업을 개선하면서 고민한 부분이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서 공모사업을 뒤로 연기할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룰 경우 예술현장에 미칠 영향이 많을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막대한 사업은 어떤 것이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나? 그리고 창작활동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예술인들이 위축되고 있는지? 꼭 창작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예술인들이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개선안을 찾는데 있어 한계점으로는 정해진 사업과 예산의 틀 안에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어디까지 바꿀 수 있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계점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내부적인 고민 속에서 내년도 기금운용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 지원신청 부적격자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예술활동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지원사업에서도 외국인이더라도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모사업에서 가능하면 예산은 적지만 확대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개인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늘리고 인건비 지원이나 임대료 지원 등을 늘리자는 부분으로 이동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중복지원이 되었던 부분에서 중복지원은 가능하면 하지 말자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죠.

○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예, 시각 쪽의 전시공간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전시공간에 30% 정도까지만 인정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신생형, 성장형 등 분류와 관계없이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을 50%까지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윤주 위원

-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영유아 자녀 돌봄비용은 이번에 처음 도입이 된 것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성평등 소위 담당이라서 관심이 가고요. 이것을 많이 알려주는 게 예술위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이 부분은 작년에 성평등 소위에서 얘기를 하실 때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이나 고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원금 안에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영유아에 대한 돌봄 비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면 예술인들도 편하게 영유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이 영유아를 외부에 맡길 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과연 얼마까지 인정을 해야 할까?”와 같은 기준은 아직까

지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로써는 “80시간 정도 인정을 해 주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평등 소위의 경력단절 여성예술인의 활동지원에 따른 문제 제기에 대해 위원회가 반응하여 지원제도를 신설한 사례입니다.

○강윤주 위원

- 저는 이것에 대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위에서 이런 제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다른 기관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정시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내시겠지만 별도로 보도 자료를 내셔서 “예술위원회가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 라는 것을 꼭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작년보다 4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진희 위원

-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돌봄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여성예술인인가요? 남성예술인도 포함이 되나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현재 영유아가 있는 예술인은 모두 대상입니다.

○이시백 위원

- 11쪽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사무처의 개선 노력과 새로운 시책을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쪽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중에 ‘성평등 행동강령 제출 의무화’라는 문구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약서와 성평등 행동강령 등 2가지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것은 순전히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후 제재용 시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요. 일이 터진 다음에 사후에 책임을 묻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치와 함께 사전에 이러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견제적 장치 또는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 창작의 과정보다 공동창작이나 협업, 다중, 공공프로젝트 등 여러 구성원이 팀 내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 자료에 신나는 예술향유에 모니터링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예술단체 평가위원과 사무처가 필요할 경우 현장을 모니터링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폭넓게 적용해서 앞서 얘기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 지원체계는 필요 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간평가나 사후평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예방적 활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면 이러한 모니터링이 기획서를 제출했을 때 제대로 이행했는가에

대해서만 머물렀는데 그 속에 하나의 항목으로 성희롱·성폭력 부분을 점검하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유란 위원

- 유사한 내용인데요. 방금 이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공연장 같은 경우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의무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완한 사례가 있는데요. 성폭력 예방 교육도 안전교육처럼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미숙 공정심의부장

-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유란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공모사업 설명자료 83페이지를 보시면 공연예술 전문인력지원 사업 같은 경우 신청불가단체로 주식회사 단체 및 공연장이 명기되어 있거든요. 들으셨겠지만 현장에서 매번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려면 주식회사로 전환한 다음에 몇 년 동안 활동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는 방식인데요. 예술단체 같은 경우 성격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문의가 계속 있었는데 혹시 내부에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우선 이시백 위원님과 정유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들겠습니다.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미숙 공정심의부장

-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물론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복지재단의 온라인 교육을 들었다는 것을 필수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답변을 할 때는 현장에서 그 교육을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어떻게 제도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큰 틀의 대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고안전에 ○작가에 관한 논의가 있으니까 중요한 논의는 그때 하시는 것으로 두 분의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 83쪽에 있는 주식회사 제한과 관련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런 제한조치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홍승욱 원장이 답변을 하시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사회적 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 되어야 전환이 가

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어떤 형태를 갖추든 사회적 기업으로 되는데 장애는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을 유지하기가 힘들니까 “사회적 기업 안 해.” 이렇게 되었을 때 지원신청 자격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지금은 주식회사나 공연장 쪽은 불가인데요. 이 사업은 사실 공연예술단체 중에 영세한 단체와 공연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실 주식회사라고 하면 저희 위원회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란 위원

-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회사 형태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근거가 필요하다면 조사가 이루어져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사실 주식회사를 허용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게 되었을 때 “신청이 폭증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자격기준을 미리 제한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갖고 있어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신청자격을 드리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논의가 끝났으면 성안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83쪽 유의사항에 “소규모 주식회사 및 공연장은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가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이 사항만 빼면 될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그러면 83쪽 유의사항 첫 번째 “주식회사 단체 및 공연장 신청불가(단, 사회적 기업은 지원신청 가능)”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지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 16쪽에 보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부적격자로 했었는데요. 지금 박경주 위원님이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술인활동증명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열어두는 게 어떠한 의견입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외국인 중에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F5) 그리고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난민권을 취득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그리고 재일동포 중에서도 국적을 잃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재일동포 출입국 법에 따라서 외국 국적의 동포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법상으로도,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사업 등도 해당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는 따라와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뽑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들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여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외국인들 중에서 전문예술가로 활동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해서 해당 자료를 넘겨드렸지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별도의 트랙이 있어야 하나? 아니면 자격을 낮추는 게 좋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깐 “자격을 낮추는 게 좋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별도로 만드는 것조차 차별이고 그것보다는 동등하게 전문예술가로서 경쟁해서 자기 능력으로 따내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7기 위원회에서 획기적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제가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나라도움에 이 분들이 접속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저희가 검토를 한 바로는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아는 작가나 창작자들 중에도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정 활동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연단체라는 것은 여러 명이 지원을 받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를 든 사례에 속하는 분이 지원 받은 경우가 한번도 없었나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을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미국 국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았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사업수행을 안 해서 반납조치를 했는데 미국으로 가서 반납 조치를 못 했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어서 제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체류하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배제를 한 것은 아니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다고 하면 저기에 준하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답변이 되었네요. 그런데 박경주 위원님 저기 참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경주 위원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을 할 때 자격입니다. 저기에 보면 E6-1 이라는 예술가 비자가 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F2비자도 거주비자인데 계속 연장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인복지법 상으로 활동증명이 되면 다른 기금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이 검토돼서 오랜 기간 체류한다는 보장이 있는 비자만..... 난민도 오래 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검토를 거친 내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법적 토대는 어떻게 되지요? 예술인복지법인가요?

○박경주 위원

-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자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다면 예술활동증명 자격과 같이 가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범위에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윤주 위원

- 저는 다른 것을 하나 여쭙보고 싶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고용보험을 의무로 다 들어야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맞나요?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본부장과 둘이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시행령(안)이 지금 회의 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무이기도 하고요.

○강윤주 위원

- 지원을 받은 예술인들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전효관 사무처장

- 예를 들어 50만 원 이상의 사례비가 들어가면 체결해야 하고요. 지금 보니까 신고의무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제가 여쭙보는 이유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업주가 예술인일 경우에 행정을 담당하는 등 어렵다는 겁니다. 극단의 대표도 힘든데 그것까지 다하면 힘들다는 게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12월 10일부터 강제 조항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그냥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일단 법상 12월 10일부터 의무조항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법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연보다 시각이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원 사업으로 받았는데 고용보험 때문에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쭙보는 겁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만약에 신고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말하자면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그 안에 나와야 됩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예술현장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워 질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처음 시작할 때의 혼돈처럼 예술계가 혼돈스러울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위원회는 예술가의 친구인 조직이잖아요. 현장예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나 장치도 같이 내놓아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논의하면 대책 없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런데 당장 내일 공고가 나간다는데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저희도 시행령을 지금 받았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지금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와 같은 공공기관이 신고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요. 원 발주자 그러니까 공고를 낸 주체입니다. 우리 예술위원회가 신고를 해야 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면 극단의 대표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나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이 법대로 된다면 예술단체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강윤주 위원

- 예술위원회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네요.

○이희경 위원

- 일단 그 문제를 포함해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사안은 정리해서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복잡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것은 저희가 담당하시는 분을 초대해서 이해를 돕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먼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요. 현장예술계의 혼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그리고 정유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지원신청 부적격자에도 주식회사를 넣지 말라는 얘기도 없고요. 실제로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에서 걸러내겠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다만, 초기에 우리 감사실장도 이 사업의 설계를 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회사는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배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다른 사업에서는 배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인력지원사업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인력까지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 라는 기조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어쨌든 그 부분은 심의에서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은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워낙 많아졌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업취지에 따라서 심의를 할 때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정책 소위에서도 많은 위원들과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요.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회에서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아르코의 가장 중요한 공모사업이 이 사업이고 그것을 결정하는데 주요 방침의 방향이나 철학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르코가 갖고 있는 내부 조직의 정책이나 방향,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공모사업으로 구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매우 단면적이고 서비스 개선의 느낌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잘 될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르코가 가지고 있는 지원사업의 정책이 드러나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금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심지어 고민을 한 내용 자체도 표현이 안 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오늘 꼭 수정을 하거나 성안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번 지원사업의 추진방침은 코로나를 비롯한 재난 시기에 대한 위기대응에 대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술지원환경과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가 기술혁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원사업의 구조 안에서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생태계 등 구조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지원 사업을 계속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0)번에 예산편성 항목 확대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정책을 준비하고도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읽으면 “예산항목이 바뀌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좋은 정책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관련해서 인건비 3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된 것처럼 영유아 자녀 돌봄비용 편성도 완전히 다른 성과죠. 이것은 이용자들이 정책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술될 것이 아니라 코로나 긴급대응의 항목으로 정리가 되고, 후자는 생태계 환경으로 구조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밖에서 예술위원회를 봤을 때 “아르코가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도전과 실험을 하는구나”라고 읽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노력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도..... 그러니까 기술 방법들의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정책 소위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기술이나 온라인에 대한 지원이 예술기관이 아닌 밖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관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해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런데 예술인은 사실 대면접촉도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냥 온라인이나 비대면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지원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읽으면 다른 지원정책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온도차가 상당히 있는데 예술현장의 환경도 안 되어 있고 실제로 비대면으로 가는 것인지? 그런 환경이나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르코의 전문성이나 방향 설정에 있어서 공모사업 지침 기술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예산 항목의 사업편성과 공모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모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예술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철학과 정책을 보여주는 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이희경 위원님께서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이희경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설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내용을 그것에 맞게 재구성해서 포인트를 줘야 현장에서 저희의 작업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태까지 예술위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거든요.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현장에서는 잘 몰라요.

그것은 저희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알릴 때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의 추가 발언이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정책 소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저희가 현장설명회 보도자료를 만들 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범주화 하고 메세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내부적으로 지원사업의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르별, 사업항목별로 얼마가 아니라 전체 공모사업에서 내부적으로 크로스체크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환경조성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의제 발굴 등도 체크가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짤 때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놓고 “올해는 몇 %정도 더 실험적으로 해 보자.” 이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희경 위원

- 한 가지 제안입니다.

내년도 사업 말고 저희가 지금 사업혁신 TF가 2022년을 관장하잖아요. 그럴 때 장르별로 너무 모임이 많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안이 나오면 정책 소위와 같이 회의를 해서 그런 일을 발전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코로나 위기대응이라는 제도 신설의 문제, 그 다음에 행정절차의 간소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강조하는 형태의 대응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기술, 온라인 등의 무차별 적용을 넘어서고 벗어나는 지원정책의 관행이라는 부분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장르 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따져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8일이라고 하면 추석을 제외하면 목전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정기공모가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기공모를 제외하고 수시공모를 잘게 나누는 것은 이런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지적들이 잘 반응되도록 새롭게 재정비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윤주 위원

- 아까 제가 양육비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술위와 관련된 소식이 어떤 방식으로 언론에 노출되는지를 유심히 봤는데요. 너무 사무적인 용어, 사무적인 기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련되고 예술인들도 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대안을 낸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홍보가 약하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강윤주 위원

- 요즘의 흔히 말하는 카드 뉴스라든가 트렌드를 보시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청년 세대에게 홍보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올드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기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누구도 어떤 기관이 뭘 했다는 것을 찾아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되건 사례를 통해서 되건 간에 그런 것을 보고 나서 “그 기관은 잘 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홍보방식은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SNS 환경에서는 기관이 자체제작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10개 중에 1개를 홍보한다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그러려면 그런 생태계와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잘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체천시청 등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파격적입니다. 저희가 사회 전반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저희 홍보팀이 언론 관련해서 대응을 1~2 명이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요.

○강윤주 위원

- 홍보 관련해서는 청년서포터즈가 있잖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것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강윤주 위원

-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술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엄청나게 부각이 되는데 잘한 것은 너무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도 힘이 안 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받을 것에 대해서 세련되게 나가는 것도 다른 어떤 것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팀이 연구를 하시든 서포터즈를 운영하시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진희 위원

- 11페이지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신규, 국고 예산이 포함되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온라인 예술환경이 확대되는 것은 코로나 19 위기대응의 한 방법이겠지만 실제로 접근성과 관련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제안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성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 추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고필 위원

-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일보를 통해서 예술위원회 소식을 듣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안 했는데 지금은 하니까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예술인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예술위원회 사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 지속성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기후 위기, 지구환경, 인류세 등은 동일하니까 이런 정도로 위당을 하셔서 그 사업의 범주에서 카테고리를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비전과 철학을 담은 2021년 사업으로 공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 용어는 오해의 지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순회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하고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지역문화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해가 명확하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합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공모사업이 나갈 때 이것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의 회의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는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게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형편에도 예술창작역량강화에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지금 이원재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는 창작활동이라고 하는 예술 본연의 가치를 결코 놓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예산도 명확하게 증액시킨 부분도 있는데요. 예산 편성 등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짜놓고 하나도 못하는 형편이니까 답답하기는 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총괄해서 설명회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한 가지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지원마감을 6시로 하고 있잖아요. 최근 서울문화재단이 지원마감을 자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인들은 증빙서류 등을 발급하다보면 6시까지는 촉박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정까지 접수를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금요일 6시면 다들 어렵거든요. 어차피 오후 6시에 마감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 신청 마감과 추후 업무를 할 것인데요. 자정까지 접수가 가능한가요? 서울문화재단이 시행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마감시간을 12시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설명을 드리면 서울문화재단이 12시까지 한 이유가 트래픽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6시로 하니 다운된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최근하고 6시에 몰려서 트래픽을 부담을 줬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요즘은 앞서서 우편물을 받는 시대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기술적 문제가 없으면 받아 주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이런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죠.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부담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예술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계속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자부담 관련해서 내년 한 해만이라도 안 받으면 안 되나요?

○박종관 위원장

-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자부담 경감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즉시 결정이 어렵지요.
이제 논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파격적일 수도 있으나 2021년도에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박경주 위원

- 정말 감사합니다.

○강윤주 위원

- 양육비도 파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양육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전시공간 같은 경우 심의폴 심의를 별도로 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열었고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고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거나 끊임없이 지원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원칙을 가지고 최대한 대응했으나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보다 더 편하게 만들지 못한 그런 송구함이 있습니다. 수시지원으로 대응하면서 좀처럼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코로나 시대를 버텨나가는 예술인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의 유의사항에 '주식회사' 부분을 삭제하여 심의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모두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10분간 쉬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2020년-2021년 국제예술공동기금 「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 리서치 사업공모 계획(안)입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안건번호 제 842호입니다.
안건은 2020년-2021년 「한국-싱가포르 교류 협력 프로그램」 리서치 공모 계획(안)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와 매달 2회 이상 영상회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공유가 된 것이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아르코 국제예술공동기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총괄 기획자를 뽑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심포지엄을 추진하는 맥락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3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리서치 공모는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와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싱가포르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식 게재해서 양국 예술가들이 동리서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원신청을 받은 이후에 영문 요약본을 싱가포르 측에 전달하고 싱가포르 측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아서 심의 시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당초 총괄기획자로 뽑은 4인과 이번에 뽑은 아르코 총괄기획자 1인으로 총 5인이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원신청 대상을 보시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의 협업 사업 발표를 전제로 한 사업이어야 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사업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확산에 대비해서 대비를 한 대안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싱가포르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중심은 싱가포르와의 교류사업이지만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아세안 지역 9개국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열어두었습니다. 관련해서 35페이지의 심의기준은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지원신청서 상에 영문으로 된 요약본 제출을 의무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주 위원

- 제가 지난번에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왜 이 나라가 선정되어야 하는가?”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봤는데요. 왜 싱가포르에 대해서 하신 건가요?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2019년 우리 정부가 신 남방정책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그 쪽 총리가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위원장과 싱가포르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만나서 이런 교류를 확대 하겠다는 MOU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쪽으로는 유럽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 국가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중장기적으로 아세안의 다양한 나라들과 다자간 협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싱가포르의 단체와 교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떤 국가와 한다는 게 미리 설정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올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중장기 방향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MOU를 체결하면 그 사업들을 미리 예술단체에 알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다음 보고사항과 연결되는 사항인데 지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질문하십시오.

○이희경 위원

- 사실 지난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처음으로 아세안 쪽과 교류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방향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도 아세안 쪽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싱가포르 다음으로 네덜란드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기금사업은 양국이 같이 하다보니까 사전에 의지가 있어야 하고 지원금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는 2019년도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실무자들도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알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난번에 했던 것인데 자세히 못 보고 왔는데요. 초청장이 필수로 되어 있네요? 36쪽을 보시면 제출 서류에 초청장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총괄기획자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단체들에게 여지를 줘야 하는데요. 초청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신청대상의 자격이 한국-싱가포르 예술단체 간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021년도에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서 협업 사업 발표가 전제로 된 사업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무엇을 만들기 보다는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된 사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로 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을 잘 들었고요. 대안을 낼 수 있으면 내 줘야 합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택해서 초청장을 무조건 내는 것보다 낼 수 있으면 심의에 도움이 되는 방식
으로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상황을 고려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리서치 사업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힘들다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초청장이 없어도 좋으니까 열어놓고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원안을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저희가 자꾸 아세안 국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려면 양쪽에서
기금을 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련하신 싱가포르 외의 국가들은 그런 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거든요. 대신 자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협력을 하는 식으로 해서라
도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열어두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동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네덜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혹은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기념한 문화예술 교류”라는 형식으로 정례프로그램 보다는 특별한 계기를 기념하는 형식
의 사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초청장 문제는 상황에 맞춰 필수조항으로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 보고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2개의 보고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보고되어야 할 내용이었던 예술요원제도 운영 현황과 문체부-예술위 자율운영협약 체결 경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미술계 성희롱 논란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경과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사항은 위원회 규정 “위원회 회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해당 안전에 대해 제안사유와 관련 문서를 정리하는 동안 예술요원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개월 전에 보고를 받자고 한 것인데 드디어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홍승욱 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담당자도 같이 왔다고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보고하기 전에 저희 예술요원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정선미 대리를 소개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 분을 늘리는데 1년 이상 2년이 걸렸습니다. 그 많은 예술요원들을 관리하는 분이 없어서 나주에 있는 직원들이 별도의 업무로 다루고 있었는데 책임자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예술요원제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5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경과입니다.

1973년도에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3년도에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의무적 실시를 실시하는 병역법 개정이 2014년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위가 '예술요원' 복무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사업이 예술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진행하다가 2019년도 1월부터 저희 예술인력개발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 목적은 자료로 같음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병역 대체복무를 통해서 예술가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구요. 또한 이 예술요원들이 봉사를 통해서 문화 소외 계층에게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근거는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다만, 56쪽에 있는 병역법 제33조의 7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후반부 자료에도 있지만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서 예술요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입요건입니다.

병역법에 따라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에서 입상 성적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 공동 2위인 경우는 모두 가능하고 점수가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국내예술경영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에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도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요. 현재까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편입은 저희 예술위에 수상실적 등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들을 받고 문체부에 전달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복무내용입니다.

사실 복무내용을 보시면 기간으로는 짧아 보이지만 사실 복무를 하면서 봉사까지 겸해야 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쉽지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무기간이 34개월 동안 진행되고요. 봉사활동 의무시간은 총 544시간을 봉사활동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57쪽입니다.

복무관리에 대한 역할 관리로 병무청,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곳은 병무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거기에 따른 훈령을 만들고 저희 예술위원회와 같이 봉사활동 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리지원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술요원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 예술위가 모두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체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예술요원에 대해서만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편입, 복무관리지원,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관리지원, 그 밖의 관리·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무관리 추진체계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부터 어떤 내용들을 갖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실적들을 받고 그것에 대해 1차 검토를 하고 문체부에 보내면 문체부가 그것을 다시 병무청에 보내서 최종적으로 실적이 인정되는 관리체계입니다.

복무관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요원 편입 및 편입해제는 상시업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관리지원 중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을 연 2회 진행하고 신상이동 현황 보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요원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검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 때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공연을 간다거나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할 때도 국외여행에 대한 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이므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는데 질문을 하시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현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는 89명인데요. 이번 달 초에 3명이 추가 편입이 되어서 현재 92명이 예술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 중에서 훈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최대 하루 봉사시간을 16시간까지 인정했었는데 이제는 이동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2019년도 병무청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을 병무청이 반영해서 훈령이 강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술요원들이 34개월 동안 544시간에 대한 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져서 저희도 해당 부분을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1년간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병무청과 추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병무청과 얘기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윤주 위원

-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술요원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문제는 예술요원들이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에이전시가 필요하다는 제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 과거에는 그나마 이동시간을 포함해 줬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훈령이 바뀌기 전에 채우느라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것은 너무 허울뿐인 제도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장님도 “오히려 어려워진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누구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인가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2018년도에 체육요원 중에서 축구선수가 허위실적을 보고하면서 이 제도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무청 감사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강윤주 위원

- 이 사람들은 대부분 콩쿠르에서 상을 받는 등 우수한 인재들인데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의 중요한 시기를 묶어둠으로써 우리나라 예술계에 굉장한ダメージ를 초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희경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지금 예술요원들이 예술 활동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자신들의 복무인데요. 문제는 봉사활동시간 544시간을 반드시 지정된 기간 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국민정서상 예술요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는다는 관점 안에서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도 체육요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해외에서 봉사를 해야만 예술체육요원으로부터 편입해제가 가능합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봉사활동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가 있으며 그들에게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에이전시가 필요한데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전임 직원이 온 것이 기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예술위에서 할 수 있다면 이 제도의 변화에 혁혁한 성과를 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10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시행처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전국 3,000여 개의 기관과 단체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수요처를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된 수요처는 32개 기관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뀐 시행령은 내가 가고 싶은 데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지정된 단체나 공간에 가서 해야 됩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면 연습이나 리허설 같은 것은 포함이 되나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포함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희경 위원

- 강윤주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문제가 많아요. 요원들이 제대로 안 하고요. 체육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음악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분들도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뭔가 본인들의 예술활동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외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소외계층한테 가서 연주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술인력을 좋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매칭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면 문체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만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 관점보다는 “무조건 시간만 채우자.”라는 식으로 나가니까 마치 예술가들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여쭙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이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때문에 몇 군데를 만났어요. 사실 어떤 딜레마에 빠졌느냐 하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서 연주를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냥 탐클래스의 연주자가 어려운 데라고 해서 연주를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만나는 것을 개발해야 되죠. 그것을 개발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품과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그것을 논할 때마다 문체부가 말합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국방부에서 없애버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이 핵심인데요. 지금 인원이 좀 많은 인원이라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희경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술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이희경 위원

- 전체 요원 중에 예술이 3.3%입니다. 산업요원에 비해서요.

○박종관 위원장

- 이것 때문에 청문회에 갔는데요. 특히 예술요원 관련해서 사회적 시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예술영재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를 들면 전남교육청에서 저희와 MOU를 하면서 “사는 곳이 지방이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은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예술요원이 있지 않느냐? 세계적인 연주자의 교육을 받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운용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사실 개정된 시행령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 가운데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요원이 가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거리가 먼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문체부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통해서 병무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바뀌고 난 이후에 1년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모아서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2020년에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참고자료인데 국제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대회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술요원 편입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요원의 총수를 줄이겠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항변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제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지금 국내대회도 몇 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제도 유지도 위험요인이 있는 것이네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이희경 위원

- 작년에 문체부에서 이 문제로 모 의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의원실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소관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특혜라고 보고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인정했던 것을 많이 줄였거든요. 많이 줄여서 현재 상태에 온 것이 때문에 이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관례가 무서운 것인데요. 동양콩쿠르 같은 것은 61년도부터 시작되었네요?

○이희경 위원

- 그런데 동양콩쿠르가 없어진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 수준에 올라온 연주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예요.

○박종관 위원장

- 그다음에 전국신인무용대회 등도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이게 연극분야에도 있었습니다. 전국연극제에서 상을 타면 제도가 있었는데 전국연극제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의 연세가 너무 많아서요. 어떤 경우에는 50대의 분들이 수상을 합니다. 결국은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잘 운영하면 정말 의미있고 유용한 제도인데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사실 이 사업에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술요원들도 다양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를 빛낼 것으로 자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인성이 조금 모자란 영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원장이 표현하려고 한 것은 부모님께 기대려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것은 어머니께서 컨트롤을 하니까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실질적으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어 저희에게 민원을 하시는데 2시간이나 통화를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강윤주 위원

- 어머니가 매니저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천재들 아닐까요?

○강윤주 위원

- 올해 어떻게든 시간을 채워보겠다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관리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그런 영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연한 것에 재미를 느끼면서 “이런 에이전시를 나한테 맡기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일종의 사업처럼 외주로 내보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의지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의 재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사람이 운영을 하면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이희경 위원

- 그런데 다른 얘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설계가 가능합니다. 워낙 많은데 대부분은 부모에 의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여러 차례 미루어진 예술요원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 막판에 생산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화예술위원회의 여러 개의 임무 중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깊이 공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제안 설명을 황진수 부장이 해 주시죠.

○홍태림 위원

- 잠시만요. 아직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오늘 보고는 이 정도만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안전번호 843호 2020년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 ○단체의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취소 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최근 예술계에서 공론화된 ○작가 성희룡 사건과 관련해서 소속된 해당 단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후적 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이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고 근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위가 성희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와 대책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근거조항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일부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오늘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배경을 조금 설명 드리자면, 오늘 논의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가 되면 서면의결을 통해서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연휴입니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위원님 4명의 발의를 통해서 오늘 의결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한 배경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찬성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모두 찬성하셨으므로 제의하신 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문체부-예술위 자율운영협약 체결 추진 경과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계속 늦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해 주세요.

○홍태림 위원

-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자율운영협약 체결 추진근거에 대해서는 같음을 하고요. 지금 현재 예술정책과장이 새로 와서 이것에 대해 제기를 했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체부와 사업혁신TF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에 워크숍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의제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러면 이행협치추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유가 될까요?

○전효관 사무처장

- 이 사항과 관련해서 문화부와 회의에서 여러 차례 했고요. 문화부에서는 위원회와 문화부가 같이 하는 논의를 조만간 열겠다는 것까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날짜나 참여자 등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겠다는 의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자술운영협약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초에 이미 비준(안) 직전까지 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아르코혁신(안) 23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행협치추진단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속히 이 문제가 의결되어서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졌는데요. 오늘 의결한 2021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계에 큰 힘이 되기를 절실하게 바랍니다. 오늘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6시 45분을 지났으니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집중하시고 위원회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286차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48분 회의종료)

